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12월 7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오랫동안 기다리던 / 찬송가 105(신) 105(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이새의 뿌리에서 / 찬송가 101(신) 106(구)

기도 / 한광기 장로

성경 봉독 / 출애굽기 4장 11-12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소명과 사명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예수는 나의 힘이요 / 찬송가 93(신) 9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찬송가 115(신) 115(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셨지만, 모세는 두려움과 부족함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출 3:12)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2. 오늘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어렵다”, “조금만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는 삶입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는가?” 하나님은 잘할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한 걸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시편 73편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힘을 잃은 듯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땅의 권세는 흔들릴지라도 하늘 보좌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연이나 혼돈 가운데 방치된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의 주권 안에서 분명한 뜻을 따라 인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들”은 단순한 연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선함을 뜻합니다. 굳어 버린 신앙이나 반복에 지친 형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상태입니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며 생기를 품은 마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오는 신선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신선함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선택하는 모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 대한 작은 순종과 기꺼운 헌신은 마른 영혼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 조용한 순종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딱딱해진 심령을 적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시편 110편을 노래한 다윗은 결코 편안한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 계시로 아들 메시아와의 대화를 보여 주시며, 이미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오너라.” 이미 주어진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함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늘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왕 되신 주님께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끝까지 정진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 금요 성경공부, 골로새서 이번주 종강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귀한 은혜를 잘 간직하셔서 말씀을 살아내시는 복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4. 오늘 주일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오늘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6. 12월 21일을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7.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다음에 광고 드립니다.
8. 이번 주 기도제목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신정호(미얀마), 강승우(파라과이) 선교사님 위해
금요 성경공부(골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하기

12월 예 배 위 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한광기(7)	최명희(14) 최상천(21) 조은영(28)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과 부족함을 이유로 주저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무엇을 말할까 가르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출 4:12).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을 붙들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